

**금주일언**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항상 몸을 닦으면 이는 불사에 처하는 것이니 어디를 가나 근심이 없다  
(법구경·자인품 121절)

# 東大新聞

발행인: 김민준, 편집인: 김민준,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61)770-2057

## 교양선택과목 대부분 3시간 연강 2시간 단축수업도 다반사

### ‘교수-책임의식·학생-권리찾기’ 만이 유일한 처방

‘소설의 이해’, ‘불교와 예술’, ‘사회복지의 이해’,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양선택과목과 일부 전공과목이 종합강의시간표와는 달리 3시간연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다 2시간만에 수업을 끝내는 등 수업시간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일이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강부터 단축수업을 원칙으로 정해놓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시간과 1시간으로 나누어 주당 3시간의 교양선택과목의 대부분이 학생들과 교수의 합의로 종합강의시간표와는 달리 3시간 연강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의 요구와 교수들의 동의로 이루어지나 일부는 교수가 이 먼저 연강을 제안할 때도 있다. “1시간 수업은 출석을 부르다보면 시간이 거의 다가 연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교수들의 입장과 “강의실 이동이나 수업준비등이 편해서 좋다”는 학생들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수업시간 연강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첫 시간에 연강이 결정되어 정정기간에 신청한 학생이 수업을 들지 못하게 된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아르바이트등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짤

학생들이 연강으로 인해 시간활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9시부터 시작되는 강의가 연강으로 8시부터 시작돼 부담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는 연강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종합강의시간표상으로는 겹쳐 신청할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은 “종합강의시간표의 교양선택과목이 3시간연강으로 되어있으면 더 효율적인 시간활용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반 성인의 집중시간 한계가 50분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3시간 연강수업은 교수에게나 학생에게나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연강수업이 진행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도중에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교무와 학문우계장은 “수업의 결손을 막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3시간수업은 2시간으로 나눠 진행되는 것이 본교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수회 김익기 회장은 “연강수업은 잘못된 것”이라며 “같이 연강을 해야한다면 교수들이 교무과에 미리 신청을 해야 종합강의시간표와 다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를 학생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연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강

수업의 정규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간혹 수업을 일찍 끝내는데는 강의가 연강으로 2시간 반이나 2시간 10분, 심지어는 2시간만에 수업을 끝내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강할 시간에 수업이 있다는 이유로 연강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수업이 있는 학생은 일찍 나가도 좋다”거나 “2시간동안 3시간한 것 만큼 알차게 하자”는 추상적인 전제를 내세워 2시간만에 끝낼 것을 약속한 채 연강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연강을 반대하던 학생들은 교수님보다 다른 학생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이유에 더 이상 아무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등록금을 생각하면 아깝지만 당장은 편하니까 원하게 된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을 때는 깨우치고 알려주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며 이에 부응하거나 이를 부추겨 정해진 시간만큼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것은 직무유기이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의식 개혁이다. 연강으로 인한 수업권의 포기나 행정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리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의 인식 문제이기 때문이다.

(심미선 기자)



## 김화수 화백, 그림 1백점 기증 사군자·왕죽도등 1억원상당

김화수화백이 동국발전기금미련을 위해 사군자, 왕죽도 등 1억원 상당의 그림 1백점을 지난 18일 총장실에서 본교에 기증했다.

김화백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차, 이렇게 동국발전기금에 대한 기부금을 기증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송총장은 “훈을 바쳐 그린 소중한 그림을 동국발전기금에 기증해

## 제3차 ‘임금 및 단체 협상’

학교 5% 제안... 노조 7.6% 요구

제3차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오는 28일 교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주 사안이 될 임금협상안에 대해 노조측은 “삼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지난 96년 실질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97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7.6%에서 13.6%선에서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힌뒤 “본교 노조는 학교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7.6%의 실질적인 기본급 인상을 제안할 것”이며, 이와 함께 “효도수당의 정액 10%이상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학교측에서 제안한 5%내의 임금인상안에 대해 노조측은 “그동안 등록금 인상폭이 교직원들의 임금인상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5%인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들어 임금인상률을 제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체협상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수렴하여 대화로 풀어나가면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낙관한 뒤 “전체 10개 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니 만큼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직원 신행실수 교육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29일 ‘전체 교직원 신행실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12까지 치뤄질 이번 행사는 △이법산 원장의 건학이념강의

## 보 리 수

대장경이란 불교의 모든 전적을 총칭하는 말이며, 경율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장경이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 두차례에 걸쳐 조판되었다. 제 8대 현종때 시작하여 만들어 낸 초초(初雕)장경과 제 23대 고종때 16년간에 걸쳐 완성한 재조(再雕)장경이 그것이다. 초조장경이 몽고 군의 침입으로 불에 타 버려져 다시 만든 고려 재조장경이 오늘날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속칭 팔만대장경이다.

동양 불교권에서는 일찍이 송나라 개보관(開寶敕)장경을 필두로 각국의 여러 민족이 저마다 대장경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각별한 역사적 정신적 의미를 지니는 국보 제 32호 고려대장경의 가치는 단연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내용 및 체제의 뛰어난 학문성은 물론 오·탈자가 없기로 유명한 정밀성, 그리고 특히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세계 유일의 대장경이라는 점 등등이 그러하다. 지난 95년 12월 유네스코에 의해 고려대장경관이 인류를 위해 보존되어야 할 세계 중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국보이며 세계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해인사 고려대장경 연구소에 의해 93년 초부터 전산화되어 왔다. 현재 그 1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다시 원문과 우리말 번역 영상을 함께 CD롬에 입력하고 문헌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2단계 사업이 2천년 완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또 연구소 측은 전문 음악인에 의하여 팔만대장경을 음악으로도 만들고 있다고 들린다. 조상이 남긴 팔만대장경이 명실공히 21세기의 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자부심 느끼게 하는 소식들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인 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불사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한다. 국가가 대장경을 국보로 지정하고, 세계 기구가 그것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정하기를 했지만, 21세기를 향한 그 재탄생에는 정부도 사회도 심지어 종단과 불자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는 지금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백일 동안 계속될 이 캠페인에는 ‘1인 1경관 만들기 운동’을 통한 8만 후원인 모집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옛날 고려 시대에 온 겨레가 단결하여 팔만대장경을 새겼듯이,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21세기의 대장경을 만들 차례이다. 그것이 미래 사회, 그리고 역사와 후손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봉 춘**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 교수동정

● 오국근(영어영문학)=오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산악부 히말라야 등반지도자 내발 Villa Everest 방문.  
● 이재진(전기·전자 공학)=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국제학회 논문 발표차 미국 뉴올리언즈 방문.  
● 송민규(반도체공학)=오는 25일

## 알 리

지난 3월17일자 제1219호의 ‘4월 9일까지 수납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교육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며 본교 교무과에서 제시하는 최종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호는 수습기자 선발관계로 휴간 합니다. 제1220호는 4월7일자로 발행 됩니다.

## 조선대 류재을군 시위도중 사망

### 지난 21일 규탄집회도중 본교생 1명연행·3명부상

작년 8월 연세대 사태이후 경찰의 시위진압이 점점 과격해져 집회 때마다 학생들의 부상이 늘고 있던 가운데 지난 21일 조선대 학생 류재을(행정2)군이 미국과 김영삼 정권의 재집권 음모 분쇄를 위한 민족조선 개강 투쟁선 포식을 마치고 정문에서 진경과 대치 중 쓰러져 조선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3시경 사망했다.

사건 다음날인 21일 기자회견을 연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남총련)에 따르면, 조선대생 류재을군은 경찰의 시위학생 진압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덧붙여 남총련은 “당시 경찰들이 최루탄과 물을 무차별적으로 난

사하며 진압했으니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의 살인적인 공격형 진압이 류군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유가족과 협의해 정확한 사인 규명에 힘을 쏟을 방침을 밝혔다.

병원장 최봉남씨는 21일 오전 11시경 “몸 왼쪽무릎이 돌아나 단단한 물체에 맞은 느낌이 든다”고 했으나 오후에는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 현재 경찰은 류재을군의 사신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반야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학생들은 사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수대를 꾸려 지키고 있다.

한편 본교 총학생회는 ‘류재을열사 살인 규탄과 부정부패 살인폭력정권

강경삼타도를 위한 민족통국결의대회’를 21일 도서관 앞에서 2시부터 진행했다.

집회후 실천활동으로 가두진출을 하려는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는 진경들간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전자공학과 7군이 연행되었으며, 경제학과 8군등 3명이 부상을 입어 제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원진욱(사4)군은 “진경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을 던지는 것도 서슴치 않고있다”며 “연행학우 석방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④

“달마대사는 동쪽으로 보내고  
김현철은 청문회로 보내고  
새내기는 동대신문사로 보내라 했거늘...

# 용기있는 자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모 집 안 내**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모집분야 : 취재·사진기자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원서접수 : 3월26일(수)오후5시까지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200자원고지 20매내외로 작성해 원서접수 파일일까지 제출  
② 면 접  
△면접일시 및 장소 : 서울-3월26일(수)오후6시  
경주-3월27일(목)오후6시  
서울·경주캠퍼스 본사 회의실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서울-260-3492  
경주-770-2057

**동대신문사**

### 정계 진출교수 사직 의무화 해야

서울대 사외대 교수들이 지난 17일 교수회의를 통해 '정·관계에 진출하는 교수의 사직을 의무화 하자'고 교수의 휴직 허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그 교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교수들을 보면 안타깝다. 아니 답답하다.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교정을 뛰쳐 나가는 그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러나 더 높은 곳이 어디가 없는 것은 교수들 중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나의 이상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계에 진출한다'고 그에게 뭐 그리 잘못됐느냐고. 그러나 그들의 이런 논리는 과거 5·6공군사정권에 부역한 어용 교수들의 논리였다.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지난해에 본교에서도 정치권에 잠깐 놀러갔다가(?) 돌아와 재직을 하려다 불발에 그친 행정학과 교수수가 있었다. 자세한 내막이야 잘 모르지만 그의 재직을 반대한 학생들은 참 절한 일이다. 정계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꼭두각시' 아니면 '거수기' 노릇만 하다가 돌아온 자들이 무슨 염치로 다시 교수를 하겠다고 그러는지 그 생각이 우스울뿐 아니라 치졸하기까지 하다. 과연 그런 어용교수-대부분의 정계진출 교수들은 정부 여당으로 들어간 다. 그들한테서 학생들이 뭘 배웠는 거?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까지 교수들의 정계진출을 비판해 왔지만 교수들의 정계 진출을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그들로 인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것은 제일 큰 피해자는 학생이다. 그들의 자리를 정식 교수자격을 가진 교수가 매우 못함으로 인해서 강의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간강사의 강의를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피해자는 강사들이다. 교수가 되기만을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문의는 (02)260-3491 · (0561)770-2057 · 8

는데 교수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수에 점잖게 평판다리를 하다가 정권이 손짓하면 우르르 달려가는 교수들을 보면 염증을 느낀다'는 한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의 교수님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정계에 진출하시려면 교수직을 그만 두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와 학생 지도에 전념하십시오.

### 임흥철 (시과대 신방과) 참사람·열린교육 수업권리 보장으로

얼마전 학교에서 '수업의 규모를 정형화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기초 수업운영의 조기안정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로이 마련한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에 대해 학생인 우리의 입장에서 수업에 대해 열심히 참여해야 할 몫이 남았다. 하지만 올해의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은 나에게 심한 불만과 불편을 주었다. 그 피해자는 다름이 아니라 학교와 교수님이었다. 우선 강의신청의 전산화는 '운동은 놔'를 탄생시켰다. 개설 강의당 정원 수가 정해져 있어 강의를 변경하려 할 때, 듣고 싶은 강의의 정원이 넘었을 경우 강의를 포기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죽치고 앉아 혹시 누가 정원에서 빠져나가지 않나를 기다려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교양과목 개설의 부족이다. 조금 인기있는 과목이거나 전공과목과 겹치지 않는 과목이라면 수강생이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하이텔(DGU9번방, ID:dgpress)과 여론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백명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학생수는 예년에 비해 훨씬 늘어난 반면 개설강의나 교수확충은 미진하다면 우리는 쉽게 학교측의 성의에 대해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내년 수강신청은 학생들의 수업의사보다는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서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강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님의 강의태도에 불만이 다. 정정기간에 학생들은 그 과목의 수업진행 방향이나 목적 등을 듣고 선택할 권리가 분명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정정기간에는 아예 수업을 안 나오시거나, 아무런 말씀도 없이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이 있다.

교수님들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수업권리에 대해 일방적이거나 아무런 사전 말씀없이 학생들을 수십명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대학이 취업학교나 돈벌이 수단인 학문연구의 중심, 참인간의 육성에 뜻을 두었다면 학생들의 응당한 수업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김용재 (시과대 정외과)

### 학생의견 배제한 학사행정 안될말

지난 13일과 19일에는 학원자주화 부정 선포식과 공개협상이 동아에서 열렸다. 13일에는 23대 총학생회 주최로 약 6백여 명의 학생들이 도서관 앞에 모여서 당면 8개 요구안을 가지고 총장님을 만나려고 총장실로 가려

### 졸업생들에게 좁은 학교 대책있어야

얼마전 우리학교를 졸업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다. 그 선배는 일반인으로서는 마땅히 공부할 장소가 없다며 모교의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무척이나 아쉬워했다. 내가 알기로는 외대나 이대 같은 경우 동문발전 기금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졸업생들의 열람실 및 시청각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학교는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졸업생들에게는 그다지 문이 넓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재학생만으로도 비좁은 도서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또한 1천8백여 명의 편입학생으로 동약은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모교라는 것이 단지 내가 졸업한 학교라는 의미만을 생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졸업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말의 편의제공이라도 해야 것이다.' 지금도 도서관 열람실에서 가방만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서관 이용시간 확대나 공간이용의 효율성(예를 들자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자리 보존이 가능한 것 등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예비 졸업생임을 생각할 때는 더욱이 말이다.

조영심 (시과대 신방과)

### 학생수첩 지급지연 해명과 사과 필요

새 학기가 시작될수록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간다. 이때쯤이면 학생들의 손에 새 학생 수첩이 있을만도 한데, 경주캠 그 어떤 학우의 손에서도 새 학생 수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얼마전에 학생수첩을 받고 선물받은 다이어리를 동생에게 주었는데, 이렇듯 앞뒤로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생수첩을 자외에 의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구입하고 싶지 않아도 학생회비에 수첩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총학생회가 많이 바쁘다는 것은 짐작하지만, 담당 학생들이 피로로 느끼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수첩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측은 학생수첩이 지연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과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무궁무진한 일이 있을 줄 안다. 여기서 총학생회가 내건 '학우공감'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진정한 '학우공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최승혜 (자연과학대 가정교육과)

### 독자시

#### 보리밭기

길이 흔들린다. 멀리서 캄캄한 보리밭이 그렇게 애처로운 이름은 한둘이 아니었다. 밟고 사느냐 밟히고 사느냐 무서운 밟길질일 뚝이 앉은 밟자옥들.....

하나 바람에 넘어진 두더지 더 크게 일어섰듯 가끔은 슬픈 것도 버림이 된다. 길 가는 길 위의 첫 걸음

송태우 (인문과학부)

### 나기

현철 씨에게 한마디

- ▶누가 YS 자식 아니랄까봐.
- ▶15대 대통령이 자식없는 사람으로
- ▶그렇게 당당하게 저지려면 대통령되시...
- ▶순대면 토크하고 타겟같은 것은 그만.
- ▶필성부님 나무는 딱잎부터 알아보다. 앞으로 거머쥔 다들 똘똘. 소산이!
- ▶부자유친이라!! 웃웃
- ▶그래도 내 아들은 이런 식으로 나를 곤경에 빠뜨리지는 않았다.
- ▶철야 구구후고 타고 지구를 떠나거라.
- ▶소산(小山), 이제는 영원히 하산(下山)하라

### 오슬길

#### 구내서점의 관리주임 이재욱(38)씨

#### "학생들이 편안히 찾을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있던지 아닌 개인의 소망을 넘기기 위해서든 말이다. 다양한 이들이 다녀가고 있음은 틀림없다. 요즘은 새학기 교재를 많이 구입하는 시기가 서점에 발판을 뜬다. 그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한 사람 있다. 얼굴은 낯익었지만 이름은 생소한 서점 관리주임 이재욱(38)씨.

"대학생시절 서점에서 일한 경험 뿐만 아니라 연대 앞에서 사회과학서점 경영한 적이 있다보니 거기에 관련된 일의 제의가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동대에도 그렇게 왔다"며 서점

에 몸담게 된 이유를 멋지게 밝히는 그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구내서점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관리하는 중대한 위치에 있다. 어찌 보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93년도에 본교로와 재학생들과 많이 접하고 동아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면서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를 보면 그의 위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점을 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다. "학생들을 신뢰하고 항상 그들 입장에서 서려고 하는데 가끔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산 책을 반쯤 읽고 환불할 때 일부 학생들이 나서 한 권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사전류는 겹은 있는데 속이 비어있는... 그리고 도서 도난사건들이 그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 본교 구내서점의 위상에 대해서

"구내서점은 책만 사러 오는 곳이 아니라 구입하지는 않아도 필요한 책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학생들이 구내서점을 단지 교재를 구입하는 곳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탈피해 편안히 볼 수 있는 휴식처이자 필요한 책을 언제든지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서점에 학생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의자도 배치하고 음향도 적당한 볼륨으로 틀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배려하는 그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본교의 학적을 가지고 동대인이라 자부하는 이들도 많지만 가끔 자격없는 행동을 하는 그들보다 비록 동대 출신은 아니더라도 동대학생들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 이재욱 씨가 진정한 동대인의 자질을 갖추지 않았을까... (최정식 기자)



동대생으로서 구내서점에 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교재 구입이

## 동/약/광/장

### 목errick

축하한다. 정·경·연

- 재삼이형, 생일 진심으로 축하! 장수하세요. -몽계구름모듬이가
- 제 12대 총학생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96권혁준
- 장경이형, R·T생활하느라 힘드시죠. 하지만 믿음직한 후배들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난 고통진
- 東國 38집 발간 바드
- 그리고... 21日 MT를 무사히 마치길 바라며 -法大 '96 한상경
- 신입생 입학!! 드디어 몽계구름 7기 탄생.애들이 먹고 축하!!
- 광남! 우리도 동문회 하자. -시기가 저하된 시기가
- 고마워요 상경이형. 잘 지내주세요. 수고하세요. -은기
- 28-30일 전자과 연합 MT의 무사고(?)를 비라며 -전자 '92 북학생이
- 경상학부(아) E반 후회이팅! 197년 1학기 우리 절리고 질살자. -꿈들이
- 사회93김세진. 3월24일은 그의 생일입니다. 그를 이기는 분 제발 생일하는 해주세요. 복 받을 겁니다. -회계91
- 재철아! 희포, 무현이가 사랑한다. -필자
- '96 흥원두 공요원의 소집대기를 불안해하며, 걱정하지 말기를... -13기 이강진과 총학생회
- 원고조 좀 빨리주세요. -필자
- 3월 26일 5시 한기족이던 아시 아들 맞이하며 2천 4백여인강조와 진군식. -13기 이강진과 총학생회
- 정철,용삼,종기형 군대 잘가세요! -성길·95기 김정호
- 힘차게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만들어가는 예대 일꾼들 정말 사랑해요 -너 띠끼리

### 온방골

축하합니다.

- 민엽, 준아! 너희의 입학 무진장 축하해. 낯선 땅 낯선 생활 처음인 만큼 두려움 의로움도 크겠지만 서인 천 인답게 당당하게! -홍일점
- 자축! 19일이었지 흥아 생일 축하해! -홍일점

하해!

- 도연이 하교 리진아! 1주년 축하하렴~ -너그 친구 로맨티스트
- 3월 25일, 불동의 새내기 수미의 생일을 축하해요. -96불동
- 풍소리 새내기의 인회를 축하합니다. 열심히 노력 합시다. -선배들
- 전산과93 이용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전산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 존경하는 송호형과 사립스런 후배 한성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규동
- 영문93 000군과 박00양의 하나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문 임팩트 델 일동
- 수교97 새내기 권경민의 생일을... -풍소리 대장, 응

### 수고하셨습니다.

- 해오름식, 새발한마당 준비하신

동원 집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합시다. 투쟁!! -개발 동아리 회원96

- 그동안 돈 모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당 사장 아재! -배고픈 학생이

### 그리고...

- 효석, 병규, 너희들은 우리 동아리의 기둥이다. 기둥은 기둥답게 살아라 -선배
- 기숙사 개강반회 성공적으로 치뤄지길... -96불동
- 소년비 문경 소포받았다? 좋겠네 -선배들
- 송재원씨 우리집에 전화 자주 하세요. -Bond
- 관경96 해정! 힘내라 힘! 년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외로운 친구
- 집에 갔다 왔나 밥은 먹었나 새파랗게 젊은 것이 맨날 놀러만 다녀! -영문 임팩트 델 일동
- 학교에서 신문 사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일보의엔 없어요. -SR
- 학교 행사때 도서관 방문 좀 해달라! 추신 수첩 주라!

■ 기선아! 서울 공기는 편찮네. 항상 몸 건강하고 생활 잘 하길 바란다. -경주에서 현아

- 한울회 신입회원들의 인회를 온 지무지 환영!! -한울회 93
- 조경시험 만인의 합력을 기원한다. -92 불동
- S학원에서 쫓린 '웅'의 미래에 축복이 가득하길 -92 불동
- 정말 정말 사랑하는 환모 오빠. 공부 열심히 해줘 -92 불동
- 학교 동전 전하기 설치비만 꼭! 매우 불편 -92 불동
- 회계학과 93학년 예비역 새내기들 화이팅! 우리 함께 달려보자! -영문 임팩트 델 일동
- 그 수많은 학생기구는 필요하고 있나? 식당 반찬이나 신경 좀 쓰지. 말뿐인 학생복지! 먹는 것부터 좀 해결해라. -92 불동
- 마조! 짝 짝 짝 선화아 힘내고 용감하게 살아라. 페인처럼 그래 다니지 말구 예쁘게 예쁘게 OK? -SR

# 민주주의 원칙없는 '문민 민주주의'



김희오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시사논단

### 진정한 3권분립 확립

장제 결정 채택까지도 무시할 수 있는 그의 초헌법적인 힘은 "내아들만 아니면 총리를 시켜도 부족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신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권력의 시너 노릇을 자임해온 검찰은 날개는 고사하고 그저 '깃털' 몇 개 뿐인데 그치고 말았다. 국회 역시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고사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모두 잠든 한밤중 날치기 통과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법원장과 헌실 안주적인 풍토의 우리나라 사법부에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도 또한 낭망한 일이지 마찮가지이다. 그 어디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분립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문민정부 출범 4년만에 보여지고 있는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저 참담한 실정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보냈던 기대와 희망은 이제 은폐간데가 없다.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여전히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들의 입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소에 하도 이골이 나 있는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의 행만 사과 성령에도 전혀 감동하지

않는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이제 정답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린다. 그 출발점은 다르나이나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구호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권력의 집중을 막고 정치권력을 간에 적절 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단군 이래 최대의 시가 사건이라는 오늘날의 한반도에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단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없었을 것이다.

헌법 제 40조의 제 66조, 제 101조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각기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법원에 속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웬만한 중화생 정도는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 나라 국민 누구도 이 같은 3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우리 정치사는 독재정치와 권력층의 부정 부패로 점철된 빼어난 과거를 지니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 역시 실망만을 안겨 주었을 뿐이다.

정치권력의 절대화를 막고 부패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다른 아닌 3권분립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선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어도 오늘날과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 대통령의 대한 견제 기능 정상화는 바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선출 과정을 보다 공개화하고 민주화하는 것과 직결된다.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오로지 대통령의 낙임에 달려 있는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정당 공천 과정을 공개화하고 민주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당총재의 일방적인 공천으로 정당 후보가 정해지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들의 사활을 가쳐는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의 예비 선거 제도를 통해 각 정당의 국회의원과 지지 단체장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공천 과정을 공개화하고 민주화해야 한다. 이 같은 국회의원 공천과 선출을 방식의 공정과 민주화는 다른 한편으로 정당의 민주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주요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임명에 앞서 사전 검증 단계를 거침으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한편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들을 사전에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개최는 권력의 시너로 전락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별 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권력의 시너화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와 노력들은 이 나라에 이변과 같은 불행한 사태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 사설

### '인치' 전통 넘어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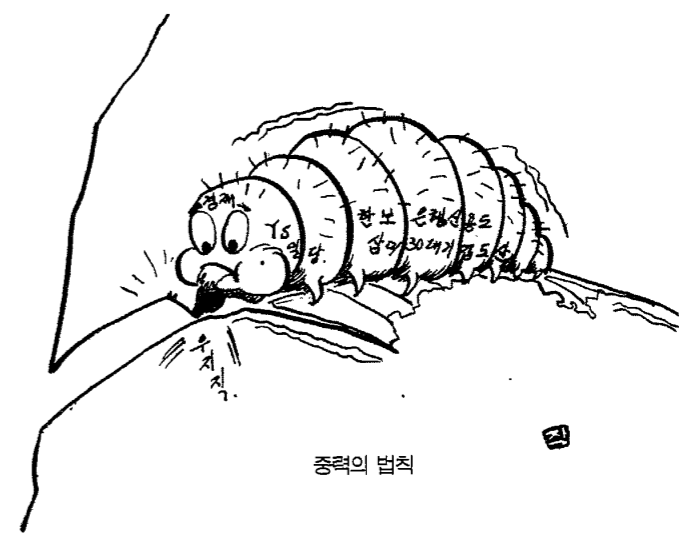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이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김현철은 사인이면서도 대통령의 아들임을 내세워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정부의 주요 인사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정보를 조작하여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을 오도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한강의 소문이 거의 사실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권력형비리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들 이 사건의 전개와 결말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김현철의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유죄처리할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혐의는 소문으로만 그치는 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분개하고 욕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각종 보도와 논평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인치(人治)'의 전통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인치는 국가의 정치가 잘 되는가 안되는가의 여부가 법이나 제도보다는 통치자의 자질에 의해 보다 더 좌우된다는 사고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법치(法治)의 반대 개념이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법치를 지향한다면 동양의 전통적인 정치는 인치에 속한다.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 중에서도 인치의 전통에 따른 법치시공조가 특히 중요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바이지만, 막상 대통령과 그 주변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몰랐던 것 같다. 김대통령은 많은 민주개혁을 실행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의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실행되었던 점에 문제가 있다. 공백에 입각한 정책결정과정을 밟지 않았으며 법정치를 준수하지도 않았다. 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쇼'라는 반목을 샀던 것이다. 3.5.6공화국의 권위주의와 행정권의 '문민독재'는 같은 인치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방후 50년의 시간을 두고도 청산하지 못한 인치의 전통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김현철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었던 마당에 김대통령의 초법적인 통치행태가 미려한 것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위기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 위기를 낳은 사회풍조에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나나 할 것 없이 법(질서)을 준수하지 않는 반칙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상의 작은 반칙들이 용인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근간에 관련되는 중요한 법이 '통치행위'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과 소수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유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초법적인 통치행태와 정·관계의 반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은 거대한 시스템은 사회구성원 각자의 준법에 의해서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김현철과 같은 자를 유혹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 일상의 작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 동국만평

고대성



중력의 법칙

정영철  
(노동정책연구소 편집부장)

### ◇특별검사제와 부정부패 방지법 도입 필요성

## 권력형 비리·부정부패 처벌체계 있으나 마나

### 효과적인 법시행 가능케 하는 법제 보완돼야

지난 2월15일 검찰은 한보사태와 관련해 현역국회의원 4명, 장관 1명, 은평장 2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한보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하여 국민들은 한보비리의 부패실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에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우리는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사 선전은 요란하게 하고 적당 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지켜보아 왔다. 이번 한보비리도 예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인 한계를 갖고 그 한계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최근 김현철씨의 리베이트 수수수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소위 '몸통에 대

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불법자금의 규모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있다. 구속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는 홍인길 의원이 8억원이고 나머지는 고작 얼마 5천만원 내지 2억원 정도이다. 한 보그룹이 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수천 억원 내지 1조원을 뇌물로 뿌렸다는 세간의 소문이나 평소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쓸쓸이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적은 액수이다.

검찰의 수사가 임명권자인 권력의 최고핵심부의 의중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형 비리사건의 전형이었음을 감안할 때 비리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 도입의 역사는 이승만정권 때 반민특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시초이다. 그후 윤치중의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대통령의 비리와 5·18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비롯한 특별검사제 도입의 요구가 빗발쳤으나 한 번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대령비리사건이나 5·18 진상규명이 권력의 의중에 의하여 재단되고 마무리되고 말았다.

한편 한보비리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은 현정부의 부패방지구가 구호에만 그치고 내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현정부의 사정활동에 대해 비정 거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보비리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하여 '공무원 윤리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 '형법' '공정경쟁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윤리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별적 부정방지법 체계로서는 공직자 부정을 잡기가 불가능하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는 한보비리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투기적(발각된) 영역을 감수하겠다는지 또는 발각되지 않으리란 확신에서, 구조적(같은 직장에 있는 공직자의 공모나 받기 등) 부정일뿐 아니라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절결의지부터 저하되어 있다.

부정부패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 외에도 부패방지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법제를 보완함으로써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하나의 법률로서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사후의행문으로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려면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

의라는 헌법적 과제(헌법 제119조 제1항)에 그 기초를 두고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부패는 국가 영역에서 일상화 되어 있다.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형성과 권력의 구조는 물론 경제·사회영역에서 국민들이 누려야만 하는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은 공허하게 된다. 또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우리들과 우리를 자손의 안전·자유·행복을 확보'하도록 헌법헌법 전문이 명시하는 민주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패방지를 위한 통일적 이고도 유일한 법제를 갖는 부정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문민정부에서 발생한 한보비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절망과 분노를 안겨준 사건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의욕을 갖고 경제활동에 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여 관련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고, 부정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들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정영철  
(노동정책연구소 편집부장)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

기술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아파트, 생활전자기기 등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생활기술을 통해 국민생활에 이바지해 온 현대의 기술 - 현대는 가치경영으로 온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차량방법장치, 미래통신기술의 핵심인 멀티미디어칩, 태양열자동차 등 첨단기술개발에 더욱 힘써 사람중심의 터전이 제공되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가치 창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치경영은 기술경영입니다

◇노동법 재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간담회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이 가장 큰 관건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노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총파업에 대한 평가**  
=민주노총이 출범한지 1년 밖에 안되는 시작하는 시기에 실망하지 않는다. 총파업이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작용했느냐 아니냐 보다는 노동자들이 국민에게 각인된 계기이자 운동이 전체민 시기에 자신감을 얻은 좋은 기회였다. 또한 언론의 왜곡보도도 사회적으로 소외반면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을 통해 새로운 인식이 있었고 이번 파업이 70~80%정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전국민적 요구와 맞물려 있었는 것이 확인되었다.

**총 24일간의 파업의 결과로 법이 새로 개정된 것은 최초의 성과였고 파업의 기간, 집중도, 성격상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  
=민주노총이 합법화 되었고 정례회제도가 2년 유예되는 등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 노동법은 여전히 개혁이 불충분하다.

**우선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금지조항은 약법조항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1백만 교사·공무원 조직은 전면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노동운동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이다. 정**

부가 더욱 막강하게 막는 것은 교사·공무원 단결권이 통과되면 보수권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다.

이밖에 직권중재조항의 존속, 신고증 제도의 존속, 연합단체의 형태를 산별연맹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되는 등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은 약법조항이 많이 남아 있다.

**민주노총의 97년 방향은**  
=예년에는 삼박기 입단투, 하반기 노개투를 추진했으나 97년에는 입단투와 노개투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므로 사회적 개혁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것은 간접적인 임금 저하저지투쟁으로 입단투, 노개투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교사·공무원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산별노조·유형노조를 조직화하는 등 조직강화 및 확대사업에 힘쓰는 것이다.

**-개정된 법이 적용될 경우 달라지는 점은**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어 공동요구안, 공동교섭, 공동사업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합법화의 공간에서 교섭권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미선 기자)

위천공단 조성 '지역발전' - '환경보존' 맞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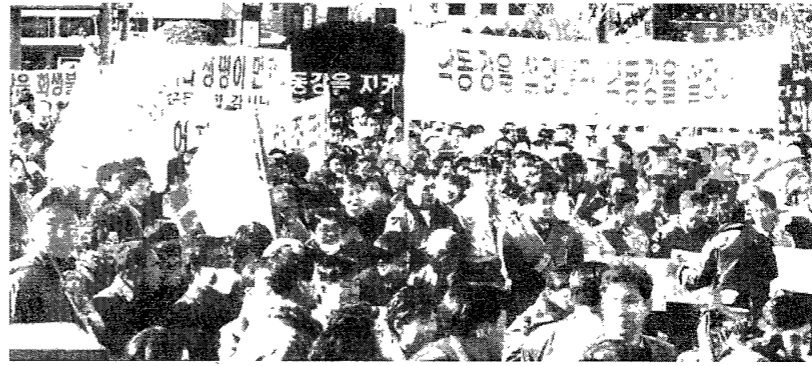
지역 주민들의 상호연대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해야

위천공단지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와 부산지역의 경제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왔다. 대구시민들은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위천공단 조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민들은 "공단조성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이들 지역과 연관된 정치권과 감정까지 가미되어 위천문제는 이제 양지역의 자존심 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들 두 지역간의 논란을 보면 먼저 위천공단 설립을 주장하는 대구측은 전체에 빠진 대구경제를 살리고 지역적으로 부족한 지방공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대구에는 고차 6개의 지방공단만이 있어 7천2백여 업체중 30%만 수용하고 나머지 5천여 업체는 공단 밖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의 32개 대학, 정문대, 실업고교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4만 5천명의 전문기능인력의 취업난 해소에도 위천공단 조성은 필수불가결이란 의견이다. 다만 수질오염 문제는 공단내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오히려 낙동강의 수질 오염도는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측은 이러한 대구측의 입장과는 다르다. 낙동강물을 식수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을 가중시킬 공단이 세워질 경우 조성한다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위천공단지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와 부산지역의 경제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왔다.

또 하나는 '물장벽'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나 집권당 일각에서 일고있는 완벽한 하수처리 시설을 통한 수질개선 약속도 전례를 보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은 생각한다.

위천공단 조성이 만약 이뤄진다면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강, 계성, 한림공단 등 18개 공단의 조성을 막을 다른 명분이 없어 낙동강은 거대한 하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지역간의 문제는 지역발전이라는 대구측의 입장과 환경적 보존이라는 부산측 입장이 서로 맞물려 지역간의 이기주의라는 병폐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구측은 "대구발전 위해 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감시, 관리하는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부산측은 "위천공단이 대구에 들어서면 안된다. 낙동강 수질오염도가 3급미만인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오염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공단이 들어오고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이기주의가 좋은 의미로 이용된다면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지방화 시대의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이익을 보지 못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위천공단 문제가 이러한 경우다. 서로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천공단 분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부산측은 부산 시장과 국회의원을까지 나서서 공단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대구측은 위천공단 추진에 관한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천공단 분쟁은 단순히 지역문제로 그치지 않게 아니다. 두지역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주민들의 상호간의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인식 기자)

삐삐·휴대폰이 강의 망친다

'수업시간 만큼은 조용히'... 작은 예절 하나 만들때

무선호출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제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삐삐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휴대전화기나 핸드폰 수요까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급한 일이 발생해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할 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등 삐삐와 핸드폰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사용자의 작은 부주의와 예절 불감증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기도 한다.

어느 강의실, 교수님의 열정과 학생들의 열의에 찬 학구열로 수업이 진행되던 도중 "삐삐 삐삐 삐삐 삐삐..." 삐삐소리가 울린다.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학생들은 그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이로 인해 잠시 수업의 흐름이 끊기게 된다. 다시 수업이 진행되려 할 때 "삐삐리리리리 삐리리리..." 핸드폰까지 터진다. 삐삐와 핸드폰이 울리는 바람에 이 수업은 말 그대로 '망'이 나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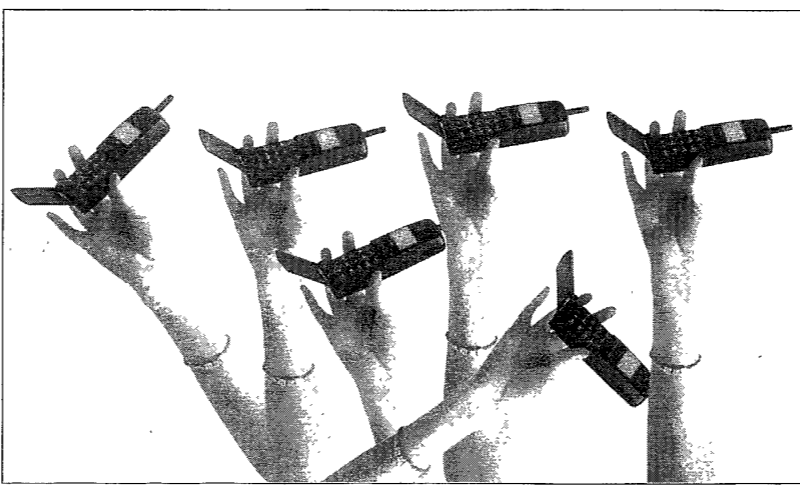
수업시간 전에 진동으로 바퀴 놓거나 전원을 꺼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학생들의 부주의 때문에 실제로 이같은 일이 수업시간에 한 두 차례 이상 일어난다. 심지어 강의실이 클 경우 뒷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학생도 있다. 이같은 일을 겪은 강사들의 한 학생은 "벨이 울리는 것도

모자라 수업시간에 전화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라며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전원을 끄는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시간에 한 번 꼴로 이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장하용 교수(신문방송학)는 "우선 강의의 흐름이 끊어 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수업은 교수 혼자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주고 받는 것인데 중간에 삐삐소리가 나면 그 흐름이 끊어져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자유로운 대학 강의라지만 최소한의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해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백명이 강의실을 들을 때 이런 일로 수업이 1분동안 끊어졌다면 1백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당사자들은 못느끼지만 다른 학생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교수님들도 삐삐가 울리면 수업할 의욕을 잃어버린다고 할 만큼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수업시간에 울리는 삐삐와 핸드폰. 그러므로써 끊어져 버리는 수업의 흐름. 이는 삐삐와 핸드폰 사용자의 작은 부주의와 예절 불감증에서 기인한다. 주머니나 가방에 삐삐를 넣고 다니다가 깜박 잊고 진동으로 바퀴 놓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만, 수업시간에 삐삐가 울



◇ 때론 시간과 정소를 가리는 삐삐 휴대폰이 필요하다

리던 그냥 멧적은 웃음으로 넘기거나 전화가 오면 아무렇게나 받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생활의 편리함 한 층 높여준 무선호출기와 휴대폰. 잘만 사용하면 정말 내외 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사용자의 소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전화방은 예절, 술 마시는 예절 등 생활 속에 갖가지 작은 예절들이 있다. 이제 우리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삐삐와 핸드폰 사용에도 작은 예절을 하나 만들자. 수업시간 만큼은 물어대지(?) 못하게 입을 막아 버리는... (김용환 기자)

동화로

분노의 이유

"야, 이 놈들 야!"

생명지원 경제학과 97학년 새내기가 들을 집었다. 날아간 들은 허공을 맴돌고 비탈진 아스팔트에 떨어진다. 아쉬운 반 안도감 반의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잠시 후 새



밧았습니다. 내연된 후배를 보내야 한다 말입니까? 어느 96학번의 이야기가 집으로 향하는 학생을 때문내가 채 가지 않은 아스팔트 위에 잠시 잡아두었다.

새는 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분노도 식혀지지 않는다. 세명의 학생이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제일병원으로 후송되고 남은 이들은 또 그들을 위해 손을 뻗는다.

작년 8월이후 학생운동의 움직임은 다소 주춤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울진 그르던 언론에 의해 유리막 안에 갇혀버렸다. 유리벽을 의식하지 못했던 새내기 대학에 들어왔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다. '저들은 왜 돌을 던지는가? 그들은 왜 전경을 연 분노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자네네 노수서 열사를 우리를 곁에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이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학생을 우리의 동지를 저들의 손아귀에서 죽여가게 해야한단 말입니까?" 함성이 들린다. 분노에 가득찬 함성.

"자네네 저의 산배님이 열사가 되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랜 저의 동기가 그 길을

밧았습니다. 내연된 후배를 보내야 한다 말입니까? 어느 96학번의 이야기가 집으로 향하는 학생을 때문내가 채 가지 않은 아스팔트 위에 잠시 잡아두었다.

새는 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분노도 식혀지지 않는다. 세명의 학생이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제일병원으로 후송되고 남은 이들은 또 그들을 위해 손을 뻗는다.

작년 8월이후 학생운동의 움직임은 다소 주춤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울진 그르던 언론에 의해 유리막 안에 갇혀버렸다. 유리벽을 의식하지 못했던 새내기 대학에 들어왔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다. '저들은 왜 돌을 던지는가? 그들은 왜 전경을 연 분노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자네네 노수서 열사를 우리를 곁에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이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학생을 우리의 동지를 저들의 손아귀에서 죽여가게 해야한단 말입니까?" 함성이 들린다. 분노에 가득찬 함성.

"자네네 저의 산배님이 열사가 되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랜 저의 동기가 그 길을

파고다외국어학원

개강 4월 2일 현재접수중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파고다는 파고다주니어 학원(421-4020)도 직접 운영합니다.

PAGODA INTERNET HOMEPAGE - http://www.pagodaac.com/

**미국인 영어회화**

**정규영어 회화과정**  
주5회 1일 1시간(월~금)  
각반 10~12명 소수 정예 / 단계별 Class 운영  
교수진 Native Speaker

**집중영어 회화과정**  
주5회 1일 90분/주3회 1일 90분(월수금)  
주2회 1일 130분(화목)  
각반 10~12명 소수 정예 / 교수진 Native Speaker

**영어**

**기초 영어회화**  
SIDE BY SIDE • FIFTY-FIFTY  
A CONVERSATION • LADO • COMMUNICATE  
석사 이상의 최고 한국인 교수진

**유학·진학·취업 영어**  
TOEIC • TOEFL • G-TELP  
READING • VOCABULARY • WRITING  
AFKN • GRE • GMAT • TIME

**일본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특혜 / 일본어 문법  
일본어 회화 (초급 I • II)

**스किन 일어회화 및 정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킨어를 통해 학습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 강좌  
\*교수진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 출신

**NEW 최신 프로그램**

**통신영어 강좌**  
학습자의 편리한 시간을 이용한 통신영어 교육  
전문 미국인 교수(석·박사)에 의한 체계적 영자교과  
단계별 영자·자주 영자 COURSE 중 선택

**대학 편입 영어**  
대학별 편입 영어시험 원전분석  
저자 직강을 통한 최고의 강의  
VOCABULARY/STRUCTURE/READING 등 분야별 Class 운영

**전문 프로그램**

**미국 WISCONSIN 대학반** 일부학과만  
한국 PAGODA → 미국 WISCONSIN WESTL  
1~6개월(1일 5시간/주 5회) 2~4개월(1일 4시간/주 5회)  
과정 수료후 입학허가서 취득 교육후 미국대학(원) 입학

**독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급과고  
독어(문법/회화) • 불어(문법/회화/프랑스인 회화)  
중국어(문법/회화/중국어 회화)  
스페인어 • 러시아어(문법/회화)

**종로: 274-4000**  
지하철 13호선 종로3가역 하차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00m

**압구정: 3442-400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하차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0m

**신촌: 717-4000**  
지하철 2호선 이대역 하차  
7번 출구 바로 앞

**강남: 501-4002**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하차  
7번 출구에서 도보로 100m

**인천: (032)864-4000**  
주인력 상에서 제물포  
방향으로 100m

**미국: (414)403-3100**  
PAGODA ESL Institute, St. Norbert College,  
100 Grant Street, De Pere, Wisconsin USA



\*편리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 종로·압구정·강남·신촌 파고다 4개학원 어디서든 원하는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학회에 대한 말이 많다. 무엇 보더라도 변했거나 학회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의 학회와 같은 위상을 누리는 모임들이 많아졌다. 시대적 변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학회와 그 사이에서 출구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편집자>

# 학회, 몸은 늘었지만 속은 '푸석'

## 현 시대에 맞는 문제의식과 변혁 필요

실한 채 현 사회가 요구하는 강요된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대학이 담당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은 부르조아 법질서, 자본주의 우월론 등을 우리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저항정신을 희석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공할 힘에 놀려 암묵적으로 동의하게끔 만든다.

90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며 대학사회의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직자 부패척결, 정치자금을 받지않겠다는 선언 등 개혁의 칼을 휘두르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것도 대학사회 분위기가 변한 한 몫을 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절차상 직접 선거에 민간인인 프리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운동권이 정권타도를 외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장을 내세우더라도 학생들은 과거처럼 뚜렷한 과녁을 찾지 못한다 허둥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특히 지금 대학인에게 드러나고 있는 일상에서의 무기력, 개인주의적 생활 양식 그리고 소비공간의 확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속에서 대학생의 스펙트럼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그 스펙트럼이 이전에 비해 보다 다양화·중층화되었다. 흔히 이야기되는 '학우 대중의 다양화된 이해와 요구'라는 말은 원래 의도와 달리 학우대중의 다양화된 중층성을 역설하고 있다. 기형 부르주아적 대중에서 사회주의자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의식적 흐름의 주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대별로 학회의 흐름을 살펴보자. 70~80년대 대학사회의 분위기는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저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사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대학사회를 움직여 나간 주체는 학생회였다. 그때의 학생회는 학우들의 많은 것을 담보해 주었다. 학생 개인의 의식확장, 삶의 변화, 학습...

의 변화, 학습...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학생회에 속해 있던 학습부 등이 학회나 소모임의 형태로 많이 전환됐다. 하지만 자본의 대학원식 및 여타 원인으로 인한 대학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인제 학회나 소모임의 구성원들이 대거 빠져나가기 되었다.

### 변화를 좇아라

학생운동의 위기가 운위되면서 언제부터인가 학생회가 아닌 학생사회를 논하기 시작했다. 소위 관을 잃어내는데 있어 범주 설정 자체가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에 결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다. 다시말해 학생회를 풀거나 또는 중심으로 두기엔 객관적으로 학우 대중의 지지와 엄호가 시들해져 위상이 실추된지 오래고, 학생회 정치 일반과 적색 깃발을 든 학생회 활동가들에 대한 냉소는 학회와 소모임의 주체적 소비라는 현상을 일반화시켰다는 얘기다. 이는 학회와 소모임의 지위상승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학회나 소모임의 구성원들이 늘어났으며 몇 년 사이에 학회의 중요성과 비중이 훨씬 커졌다.

이와같은 학회의 위상상승이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선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질적향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고학년 세미나의 지지부진함이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학회는 단지 1, 2학년의 교양 스터디 그룹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 왜 고학년 세미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고학년이 될수록 자본에 의해 강요당하는 힘의 체감도가 한층 강해지기 때문이다.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문제는 고학년 세미나가 이런 점들로 인해 그 학회 나름대로 축적된 성과물이 없게되고 그로인해 학회 자체의 특성,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커리큘럼 설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학생운동의 위기'라 하는 말과 함께 학회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학회가 학생운동에 중요한 위치를 갖고, 대학사회 내에서 저항과 변혁의 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말이 될 것이다. 학회의 대중화는 80년대 중후반의 정세를 역사적 조건으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회의 위기 역시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학사회와 학회, 대학생이 발 딛고 선 현실이, 그 지형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 실천에 대한 고민 가져야

학회가 대학사회 내의 저항과 변혁의 진지라고 한다면 발 딛고 선 현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학회를 통해서 진보적 이론을 학습하고, 그 학습으로 형성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것은 학습하기 이전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회의 커리큘럼이 80년대와 그것과 같다면, 학회는 더 이상 저항과 변혁의 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90년대 대학사회와 그 속에 존재하는 학회의 모습에 대해 살펴본다. 90년대는 자본에 의해 지배받는 시대이다. 자본주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대학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학회는 자기 주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 학습해야 한다. 문제는 학습한 이론에 맞게 주위를 어떻게 변혁시키 나가느냐다. 즉 실천의 문제다. 학회는 실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것 자체도 하나의 실천이며 학회의 존립근거이기도 때문이다.

민 경 천

(사과대 새로운 사회연구회 회장)

### ◇ 목정배(불교학)교수 를 만나서

## '미래불교의 향방' 등 3권 발간... 화답까지 접경사

매년 수강신청기간이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권해주는 과목이 있기 마련.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문화와 불교' 혹은 '불교와 예술'이다. 선배는 후배에게 후배는 또 그 후배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보니 어느새 동아에서는 그를 모르면 간첩(?)이 되버리고 만다. 강좌의 주인공이며 바로 오늘(24일) 화답을 맞는 목정배(불교학)교수를 만나보았다.



문을 비판할 계기를 반드시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 논문들이 미래불교를 향한 짐작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국문화와 불교, 불교와 예술을 강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수강학생이 워낙 많아 강의는 수업과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가장 한국적인 불교를 느끼고 부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찾기도 하지요"

58년에 입학해 내년이면 40년째 동대와 인연을 맺는 목정배교수는 누구보다도 활발한 연구활동과 후학양성에 정진해 오늘 60의 정점에 이르렀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사람에게도 절목이 필요합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 정리하고 평가해나가는 미래의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지요"

평가의 결과물이었을까. 24일자로 출간된 '미래불교의 향방' '부처님께 다가서는 법사의 고백' '미친 시승가' 등에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담겨 있다.

'부처님께 다가서는 법사의 고백'은 스스로 교수보다 법사임을 자칭하고 지난 86년 대한불교법사회를 창설해 법사양상에 힘써온 그의 60세가 수목화처럼 담담히 그려져 있고, 시와 노래의 모음집인 '미친 시승가'는 스스로 자칭하지 않아도 '술은 시승의 성격'을 띤 '미래불교의 향방'은 53명의 소장학자들의 논문으로 엮여져 있는데 미래불교에 대한 학자들의 문제제기와 대안이 나름대로 담겨져 있어 불교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교수는 이 논총집을 학자들이 스스로의 학문을 실험대에 올리는 것이며 20년 뒤에 자기 논문

"이들을 밝히는 것은 호르몬도 있고 솜씨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괄한 그 위의 빛은 우리는 광명이라고 하지요. 불교에도 마찬가지로 교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위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인간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슈퍼휴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그가 지향하는 '원력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미친 시승가'의 서문중 일부분을 여기 소개하며 그의 원력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기원해본다.

세상은 아름답고 숨겨진 것이다/ 아를 다듬어 느끼는 것은 마음이 가려왔던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꽃이 피고 있어도 가만히 멀리서 향배를 맡고 잘디잔 꽃잎을 눈여겨 보는 것은 귀한 일이다/ 꺾어보고 싶고 뺨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상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오래히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기다려진 마음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일들을 절(寺)에서 울리는 말(言)로 바꾸고 싶었다/ 말(言)이 절(寺)에서 명징되어 버리면 시(詩)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친 차승가 서문에서

(김기영 기자)

### 경주면

## 인식부족과 지역고립 탈피해야

경주면은 학생들의 인식부족이나 환경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놓여 학회에 대한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나마 대학인으로서는 단지 학업뿐만 아니라 진정한 학문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과학을 주로 다루는 학회가 생기지만 현재로는 전공학회에 대한 활성화가 대부분이다.

전공학회가 아닌 학과내에서의 토론식 학회나 한의대나 의대의 특수한 경우의 학회도 나름대로의 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회는 상경대 진사연(진보사회연구), 한의대 인과 의, 계리사랑, 한사위, 조정과 푸르미, 철학과 선인, 환경교입 늘푸름이 있지만 7천명의 학생들의 8개 단

대 41개 학과에 비해 단지 10여개의 학회는 현재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학회의 존속을 위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알 수 없다.

학회운동 중에도 활성화됐던 전공학회의 경우 학과라는 명분이라 유지해 왔으나 학부제로 인한 학부 학생들과 학과 학생들의 결합을 이루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내의 상황은 학회운동보다는 문예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취업과 연관되는 영어공부나 취미생활로써 하는 문예운동이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반응을 보인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라는 또다른 관문 이 있는 현실에서 문예운동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지 옛날의 학회를 기억하기 보다는 학생들과 공감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학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중 하나로 문화현상에 관한 학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학회 '포럼'은 이전의 학술포럼이나 전공학회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학회의 인식을 변화시키자는 의도로 생기기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학회의 활성화가 많이 이뤄져야 할것이고 더불어 학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인선 기자)

### 서울면

## 수적 증가로 다양성을 표현한다

대학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다. 동아리로 대표되는 것들 이외에도 학과나 단과대 차원의 소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임들이 많다.

단과대 별로 살펴보면, 불대 6개, 문과대 9개, 이과대 4개, 법대 4개, 사과대 16개, 경상대 9개, 생자대 4개, 공과대 2개, 사범대 20개, 예술대 4개, 아간경화 16개 정도의 모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학과 중심으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세미나를 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모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만큼 '다양한' 속성을 가지는 모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많은 모임

들이 다루고 있는 개러는 영화, 광고, 사진, 록(rock), 문화, 창작, 컴퓨터 등 신세대들 위주로 최근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전공의 특성을 살린 것들이기도 하다. 80년대 대학내에 학습을 중심으로 저항적 담론을 펼쳤던 학회와는 성격을 달리 하지만 여전히 대학 구성원의 정서에 맞아 떨어지는 것들에 접근하면서 학회가 있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들을 몇개 쪼개어 내보자. 수학교육과에는 불림과 농구를 즐기는 MEX와 탕탕볼이 있다. 그리고 북한학과에 더 잘 어울릴 듯한 경우와 직녀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이다. 지리교육과에는 하구연이

라하여 순수문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기적으로 그들의 창작작품들의 공개된 곳에 전시, 발표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리고 다들이라고 광고학과에 카메라를 애지중지한다는 모임이 있다. 이는 이해보다는 실제 영상과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과와 마구만을 뽐내보냈는데 록 소모임이다. 연주도 하고 공연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독특한 모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변화된 양상을 감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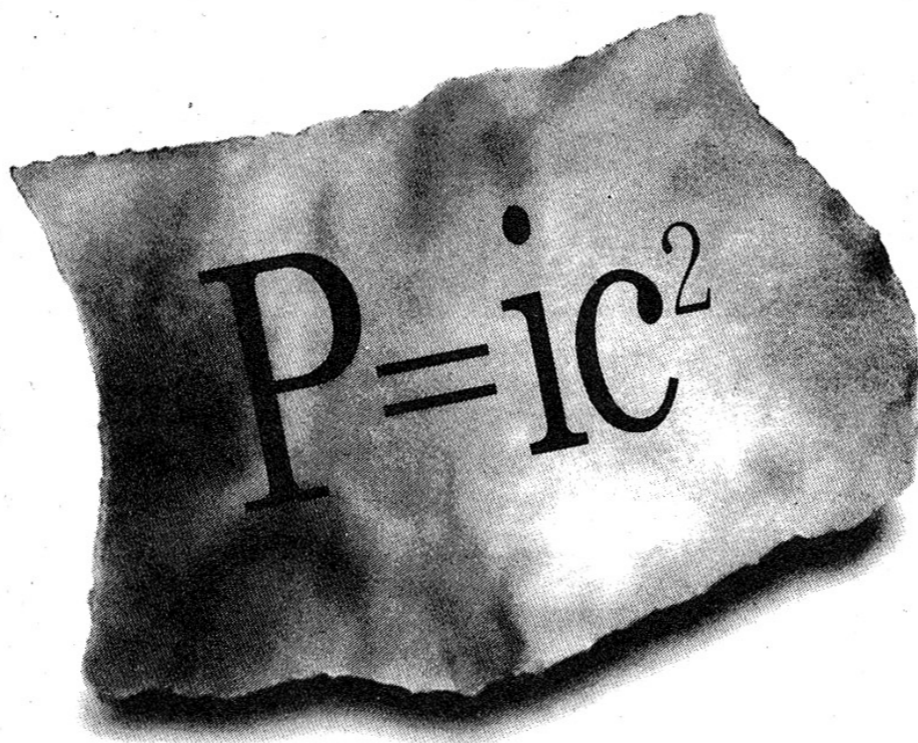
(고지은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 '97 캠퍼스 파워원리

P: Power, i: information, c: computer & communication



캠퍼스 경쟁력은 정보력이 좌우한다!

삼성전자 C&C의 앞선 정보력과 시스템이 캠퍼스 정보화의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21세기는 소프트웨어의 시대! 지구촌의 지성들과 겨루며 넓혀가야 할 당신의 정보 파워 - 이제, 캠퍼스 정보화 시대를 앞당겨가는 삼성전자 C&C의 정보통신제품과 함께, 당신의 캠퍼스 경쟁력을 키우십시오.

#### 앞서는 제품력

- No.1 컴퓨터, 삼성 매직스테이션
- 캠퍼스형 노트북PC, 센스 이카데미
- 통합문서 관리 소프트웨어 혼민정음
- 한국지형에 강한 휴대용 애니콜 디지털

#### 든든한 지원 시스템

컴퓨터 부교과목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 캠퍼스에 정보파워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C&C 정보화 솔루션 - 효과적으로 캠퍼스 정보화를 뒷받침합니다.

캠퍼스 경쟁력, 삼성전자 C&C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Smart & Soft

SAMSUNG

삼성전자

동국인을 위한 센스아카데미 특별전시판매

접수처: 중앙도서관 입구 옆 해학관 2층로비  
기간: 3월 28일까지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CC.CO.kr  
• PC통신(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GO SEC

문학단신

책이야기

영화이야기

카타르시스를 무엇인가... 화제의 작가 미광수 작. 카타르시스의 실제적 효용, 불교사상과 카타르시스, 음악사상과 카타르시스. '연민과 공포에서 '실부'와 '선명'으로 들어 주된 내용. 17면의 긴 기간 끝에 집필·수정된 책. 철학과현실사 펴냄.

3세계 영화제... 부산에 위치한 시네마테크 1/24에서 열릴 예정. 세계 각국을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사와 생활을 가진 또다른 영화역사를 만들어 가는 나라들의 작품을 소개. 오늘(24일)부터 30일까지 쉬바에서 열림. 문의 051-513-2813

김유정·이상 사후 60주년 업적과 의의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20대의 두 청년

1937년 김유정과 이상(李商)이 불과 20여살을 건격으로 사망한 것은 한국문학사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전무적 작가로 활동한 시기는 매우 짧았지만 누구보다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왕성하게 발표하였고, 그 질적수준 또한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두 작가의 문학과 삶은 무척 대조적이면서도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준다. 그들이 <구인회>등인으로 참여하면서 각별한 우정을 나눈 것이라든지, 하필이면 이십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은 것 등은 단순한 우연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나 문학적 성향은 상이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잘 알려진 것처럼 김유정이 토속적 세계를 즐겨 다루면서 천부적 유머감과 탁월한 언어 감각을 보여주었다면, 이상은 외부세계의 모순과 갈등을 내면으로 환치하거나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실험 정신을 보여준 작가였던 것이다.

김유정 소설에서 일관되게 다루어지는 것은 어리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은 공백에서 금이 나온다. 허황된 말을 믿고 밭을 갈아 없으며 뿔뿔이 나빠내 맞아들어온 벌 생각을 하거나 아내를 소중수에게 팔아넘기며 자신이 경작한 논을 버린 채 농촌을 떠날 때가 없는 우렁을 벌여 웃음을 자아내지만, 그 웃음의 뒤에는 개운하지 않다. 말하지만 김유정은 결코 웃을 수 없는 극악한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놀라운 재주를 가졌는데, 그러한 해학과 반어의 기법을 통해 식민지 농촌(산골)현실을 생생하게 재현했던 것이다. 특히 김유정이 창조적으로 계승한 전통적 이야기 방식이나 비보인물의 성격과 같은 것은 그를 1930년대의 가장 유니크한 작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장영우 (국문과 감사·문학평론가)

'97 문화유산의 해 경주, 가는 곳마다 훼손된 문화재 준비 발굴보다 보존에 우선점 두고 관리 철저해야



한때 석공의 온기가 서려있던 남산리 폐탑지의 모습

신라전년의 고도이며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인 경주, 이곳엔 약 3백여점의 문화재가 소중하게 있고, 아직 채 발굴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러한 문화재를 관리할 재정 자립도가 40%밖에 되지 않으며, 전문적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조차 없는 실정에서 그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실제로 최근 2월 한달동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예정 돼 있는 남산(사적 311호) 국립공원과 태종 무열왕릉이 화재로 인해 훼손되는 등 문화유산에 대한 소홀함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은 법적인 보호와 함께 많은 사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이 사람들의 관심으로 밀려나 수 많은 문화유산들은 갈 곳을 잃은 상태이다.

우린 여기서 그러한 소외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천관사지** 가장 천관을 기억하는가, 아니 김유정 신 장군이 자신의 명바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린 일화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에트한 이야기가 잠든 곳, 바로 그 터에 절이 세워졌다.

경주시 교동 김유정 생가로부터 약 1백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천관사지(사적 340호)는 현재는 한가운데에 우뚝 선 안내관만이 그 터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어 현관없는 보존상태를 암시해 준다.

-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 민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가꾸자는 취지에서 '문화유산사리'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
- 1.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 2. 손실된 문화재와 그 실태
- 3. 문화의 거리 인사들을 돌아보다
- 4. 경주의 무형문화재를 찾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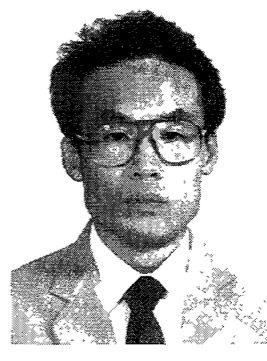
그것은 본래 생담이었다고 한다. 대부분 손상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대로 다시 쌓아 복원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보수는 못한다해도 이러한 문화재가 있다는 근거 마련을 위한 철저한 기록만이라도 해두면... **관세음보살상** 경주시 배반동 중생사 절터 근처에 위치해 서 있는 관세음보살상. 불두(머리부분)-현재 박물관에 보관가 떨어져나간 상태로 허리 이쪽부분은 땅에 묻혀있어 육안으로는 몸통 부분밖에 볼 수가 없었다.

통일신라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세음보살상은 받고랑에 붙인 단아한 모습을 살피면 말이 없었던 것이다. **고인돌** 배반동 지하도를 지나다보면 눈두렁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바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웬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그 바위가 바로 청동기 시대 무덤양식인 고인돌이다.

주검과 유골을 땅에 묻고 그 위에 죽은자의 힘(권력)에 걸맞는 크기의 돌을 얹으면 허허의 무덤이 탄생한다. 경주시는 이러한 고인돌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하기 쉬운 곳에는 안내관이라도 세워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듯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관계당국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형체는 있어도 제 구실을 찾지 못하는 우리 문화재, 형체없이 쓰러져 버린 문화유산의 역사적 전체에 얽혀있는 현용어구들로 말끔히 치장된 우리 문화재. **우린 과연 무얼 보여주고, 무얼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문화재는 안타까**

달 하나 천 강에 대학생의 참모습



봄이 오니 남녘 캠퍼스엔 매화가 피고 벌써 목련이 화산한 얼굴을 하고 있다. 텅텅이 더욱 싱싱한 대학생들이 교정에서 겨울나우의 새옷처럼 피살이나니 삶은 정녕 아름다운 것인가 보다. 그런데 한가지 불만스러운 것은 비슷비슷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모든 꽃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생겼다면 누가 꽃을 예쁘다고 할까? 진정 아름다운 것은 자기 나름의 개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답다. 가장 지성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할 대학생들이 유령에 물들어 비슷한 구두에 바지 기가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노랑머리에 한결같이 눈썹을 그리고 짙은 화장을 하였다면, 그들에게서 젊음을 잊어간 노년(老境)의 미래의 쓸쓸함을 예뻐게 된다.

대학은 다양한 것을 배우는 곳이다. 다양한 것을 배운다는 것은 곧 사고를 유연하게 하여 창조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양한 친구, 다양한 교수, 다양한 학문, 다양한 세계, 다양한 행동 양식을 통하여 자신의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현대는 자본주의의 상흔(商魂)과 전자 매체가 결합하여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잃고 기성품처럼 유행하는 젊은이들을 양산(量産)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기에 우리는 자율적인 통제력을 길러주지 못했다. 유행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프래들의 흉내는 중고등학교에서 체현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입시라는 것대로 청소년기를 통제해 그들은 모든 삶의 체험을 대학으로 유보했으니 그들이 대학에 와서 아이들 흉내를 내는 것이다.

대학이란 곳은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지적 가치를 창조하는 곳이어야 한다. 남들이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가끔 나 혼자 특이한 형태를 하는 것은 차라리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하나 하나 그렇게 해오면 내 존재가 불안하지 않다면, 그런 나약한 젊은이에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믿고 맡기겠는가? 외국에서도 한국인은 화장과 사치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까지 이러한 것이 보편화되어서는 안된다. 부모의 도움으로 편안한 자신만을 위하여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제 대학이라도 제자리를 찾아야겠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소중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나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줄인다. 이는 신입생들이 들은 사회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차단하고 고경관 관망이나 사회적인 틀을 깨치고 자신만의 창조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절로 유행에 불붙지 않고 개성 있는 젊은이가 될 수 있으며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자연과 가까이하자. 문명사회 속에서는 생각할 틈이 없다. 자주 하늘과 흐르는 강물, 풀과 나무, 어떤 밤의 은하수를 쳐다보며 삶의 여유를 갖자. 황폐해 가는 자연의 고귀함을 알면 모든 예사롭고 얌이, 쓰레기를 줄이고,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나는 인류의 발명 중에서 가장 큰 해악(害惡)을 끼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해악을 주고 있는 전기의 발명인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에너지의 발명으로 인해 모든 합성섬유와 화학제품, 비닐, 플라스틱 등이 만들어져 환경의 순환이 파괴되고 지구는 쓰레기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나는 가끔, 전기가 없는 짙 짙한 산 속이나 시골집에서 하늘의 흐르는 별을 바라보며 자연과 시간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안타까워한다. 생각하는 사람, 여유 있는 젊은이로 각자가 모두 당당한 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임수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의 재인이 시급하다 하겠다. 우리의 문화재, 한번 훼손되면 다시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임세라 기자)

서울시티폰, 지상최대의 통신서비스를 개시하라! 서울시티폰, 서울상륙작전개시! 서울시티폰 애크는 대전지, 신규고객 선별 대전지, 특별고객 감사 대전지. 서울시티폰 애크는 대전지, 신규고객 선별 대전지, 특별고객 감사 대전지. 서울시티폰 애크는 대전지, 신규고객 선별 대전지, 특별고객 감사 대전지.

◇ 도서관 출입문제 전단

학생증 조기 발급신청 필요

중앙 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은 지난 21일부터 학생증을 이용한 출입 통제를 재개했다. 그러나 한달동안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까지 미비, 도서관 출입이 필요한 학생증에 대해 학생들의 지극한 인식등은 고질적인 병폐로 밝혀졌다.

가능하지만 새로 입학한 신입생 및 여러 편입생, 복학생의 학생증 발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장학과측은 학생증 발급과 관련해 "학생증 신청만 들어오면 매우 화요일, 목요일날 발급하지만 각 단계·과에서 신청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신입생들의 경우 우 각 과 학회장이나 조교가 그 명단을 파악해 학생증 발급 신청을 장학과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기 초 많은 학부생들이 입학하는 경우 우 책임자가 인원을 다 책임질 수 없어 발급신청이 저조한 단대도 있다. 그 까닭에 공과대 경우는 학생증 발급 신청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학기가 시작되고도 20일가량 도서관에서 출입 개폐기를 작동시키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일반인 및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잡상인들까지 출입이 어느 정도 출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도난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를 본 일부 학생들이 도서관과 직원을 비롯한 사건도 벌어졌다. 지난 18일 도서관 4층 열람실에 학교와 도서관 직원을 비난하는 익명의 대자보가 익명으로 붙었다. 4층 열람실을 이용하는 한 학생이 붙인 이 대자보는 "도서관과 직원이 출입자의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열람실에서 다수의 분실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 피해가 크다"고 비난을 토로했다. 이에 도서관 측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며 "분실 사건이 출입통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출입개폐기를 작동할 때도 그런 분실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새학기에 학생증을 이용한 출입 통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 도서관 측은 "많은 신입생들과 편입생, 복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평소 도서관의 출입시" 검증된 학생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지만 새로 입학한 신입생 및 여러 편입생, 복학생의 학생증 발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장학과측은 학생증 발급과 관련해 "학생증 신청만 들어오면 매우 화요일, 목요일날 발급하지만 각 단계·과에서 신청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신입생들의 경우 우 각 과 학회장이나 조교가 그 명단을 파악해 학생증 발급 신청을 장학과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기 초 많은 학부생들이 입학하는 경우 우 책임자가 인원을 다 책임질 수 없어 발급신청이 저조한 단대도 있다. 그 까닭에 공과대 경우는 학생증 발급 신청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학과에 따르면 심지어 1년내내 학생증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증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증이 없더라도 친구나 선배의 것을 빌려 쓰는 학생, 도서관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출입에 성공한 학생이 다시 학생증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태도가 매 1학기 초 도서관 출입통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크다. 뒤늦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불합리한 점들을 학교·직원·학생들이 서로 심하게 인식해 다시 이런 일이 막을 수 있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최정식 기자)

총학, 간담회 거부 '공개협상' 요구

가능성 타진... 진정한 대화의 장 마련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총학생회(회장=구장주·야간경영4)는 '8개 요구안에 대한 학교당국과의 공개협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앞서 구장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 7, 8명이 총장실로 찾아가 공개협상에 참석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정병조 부총장은 공개협상이라는 것은 회의 절차에도 맞지 않고 교육적이지 못하고 대표자들이 의견을 모아 건의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지금이라도 학생회임원들과 논의의 자리는 마련할 수 있다"고 공개협상참석을 거절했다.

의 학생들이 실천행사로 분관 4층 총장실에서 8개안 이행을 요구했고 여기에 1백여명의 직원들이 나와 복도를 메워 지난 13일과 같은 사태는 일어날 것이 우려되기도 했다. 구장주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이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간담회의 자리 갖지 않을 것이고 공개협상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이 8개 요구안에 대한 서명운동과 버튼관대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전을 계속해서 학우들의 힘을 모아 요구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개 요구안은 △등록금 동결 △교과과정 정상화 △학부제 대안 마련 △레퍼시이전제 폐기 △88년 학생회 자율의 이행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학사행정 전면중단 △학생자치회 동 전변보장 △기타복지해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들에게 선전을 계속해서 학우들의 힘을 모아 요구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개 요구안은 △등록금 동결 △교과과정 정상화 △학부제 대안 마련 △레퍼시이전제 폐기 △88년 학생회 자율의 이행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학사행정 전면중단 △학생자치회 동 전변보장 △기타복지해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6·27일 수강과목 취소신청

신교육과정 교과목 수강자에 한해

교무처(처장=박부권·교육학)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각 단과 교과과에서 수강과목 취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받는다는. 적용 대상자는 97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 중 1,2학년은 대상으로 한 교과목 학생회 임원들이 분관을 나오자 분관당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후 2백여명

신청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취소한 과목은 해당학기 성적표에 'W'로 표기되며 학점인정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 한편, 지난 96학년도 1학기부터 학사내규 제14조(수강과목의 취소)에 의거해 시행된 이 수강과목 취소제도는 상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총여, 출범식 개최

제 12대 총여학생회(회장=김인영·사 3 이하 총여)는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부터 학림관 소강당에서 출범식을 맞이해 연극을 상영한다. 이번 출범식은 오후 5시부터 김늘이를 시작으로 사과대 율동과 '춤추는 사과'와 '사과와 노래' '애오라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진 후 여학생문화포럼 '바네'의 토론연극인 'Can Locker'의 막이 오른다.

동아리 재등록 접수

동아리 연합회(회장=김명희·역교 4)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아리 재등록을 받는다. 구비서류는 △동아리등록서 및 취입승인서 △96년 동아리 활동 보고서 △97 동아리 활동 계획서 △교내·외 학술, 봉사 활동 보고서 △회원 명단 △신규 동아리일 때는 회칙 사본 등이 필요하고 등록 회비는 2만5천원이다.

순준규 교수, 사회학과 발전기금 전달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퇴임한 순준규교수가 지난 10일 학과장인 조은(사회학)교수에게 "미흡하지만 사회학과 발전을 위해 써주셨으면 한다"며 사회학과 발전기금으로 3백만원 을 전달했다. 조교수는 이에 "순교수님의 뜻에 동의해 학과 교수님도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며 "기금의 용도는 교수님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졸준위, 인·적성 검사 실시

제9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상욱·경제4 이하 졸준위)는 98년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대비 인·적성 검사를 학술 문화관 세미나실 3실에서 4월 1,2,3일 실시한다. 이번 인·적성 검사에는 매일경제 신문사의 직무 검사지가 이용되며 수업시간문제와 다양한 인·적성 검사를 접할 수 있도록 알맞은 다른 문제로 검사가 진행된다. 접수는 졸준위에서 오늘(24일)부터 3월29일까지 받고 개인 1부당 2천원의 비용이 든다. 한편 졸준위측은 "최근 기업의 채용 전형 기준에서 능력보다는 개인의 품성을 더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인·적성검사가 기존의 채용 시험을 대체하는 요소로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

대되고 있다"며 "인·적성 검사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 서비스 교육 실시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교과 이하 생활)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활 전직원과 임대매장 대표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으로 29일 하루에 한해 교내 식당은 명진가든, 다양한 교수식당, 문화관 그릴만 운영된다. 한편, 생활은 오는 4월 1일부터 문화관 그릴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1천 5백원대의 점심식사를 배급 하기로 했다.

교수회, 교원업적 평가위원회 구성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는 연구교류처와 협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익기 교수회 회장은 "그간 학교측에서 실시했던 교원업적 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이 모호해 보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교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주환(지리교육학) △간사=곽노성(무역학) △소위원회=박종훈(국민윤리), 신재호(전자공학), 이관재(통계학), 서윤길(불교학) 등 6명이다.



◇ 님을 위한 행진... 지난 20일 조선대 유재운군의 사망과 관련해 21일 본교 도서관 앞에서 추모제가 있었다. 실천행사로 기두행진을 하려했으나 중문에 배치된 전경에 의해 저지됐다. 사진은 학생들과 전경의 모습. (이태훈 기자)

생자대, 학생회장 선출

제29대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장으로 임후보한 배근호(식자3)후보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4백52명중 2백72명이 투표에 참여해 60.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중 찬성 2백43명의 지지를 얻어 89.3%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보현회 회장 선출

교직원불자모임인 보현회는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김용철(재단사업부장)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학과소식

응용생물학과 소모임 사제에서 버섯과 나비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회를 일반 생활학 실험실에서 오늘(24일) 실시한다.

자연과학부

제2대 자연과학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임후보한 김중대·김기만(자연과학부 2)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1백41명중 94명이 투표해 66.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91표를 얻어 96.8%의 지지율을 보였다.

교육학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나산일대로 학술답사를 떠날 예정이다.

연극영화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수업시간과 방중에 제작한 영화를 상영한다.

학·전·무·대

시멘트 농구장

○...새내기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열리는 새내기 농구대회가 점점 열기를 더해간다고. 그러나 농구경기가 열리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시멘트로 된 본교 유일무이의 공대용 농구장. 시멘트 바닥이 넘어지더라도 하면 큰일이고 시멘트 위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훗날 무릎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데. 이에 새내기 한마디 "구경기가 무서워도 장을 담구어어나!"

계산착오

○... "빠리리리리" 엄숙한 수업시간을 깨우는 호출기 신호를 소리로. 대학생 4명중 3명이 호출기를 소지하다보니 어떤 장소 어느 시간이면 호출기 신호음이 울리고 이또한 동작에 하나의 소음으로 자리잡아가는데... 수업시간 마저 예외일 수 없어 호출기 소음에 수업이 끊기기 일수. 이에 회전 무재차 한마디. "진동해서 드는 약간 아까운 줄은 알고 분위가 망쳐 못듣는 수업 아까운줄은 모르는 동아리인어..."

전쟁(?)

○...대자보들의 전쟁이 한참 진행중 이라는데... 다름아니라 서로 자기에 자보를 붙이기 위해 붙여있던 자보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보를 붙이고 유유히 떠나는 학생들이 자주 눈에 띈다. 심지어 여럿이 둘러 다니며 다른 대자보를 떼는 순간을 가르쳐 주는 등 손과 발이 척척 맞는 부류도 있어... 흡사 춘각을 다루는 전경과 같은 느낌이 든다. 이에 떨어진 대자보 한마디 "주인님, 지금이예요 지금, 저를 다시 붙여 주세요!"

불꽃축제

○...중문에 있었던 불꽃 축제. 본교 학생들과 전경들간에 치열한 투쟁전이 있었다는데. 학생들은 실재없이 돌을 던지고 같이 맞대응하는 폭력경향들. 그 와중에 한명이 팔러가고 부상당한 학생도 있어. 김명삼 정권의 마지막은 왜이리 멀고도 험난하, 애꿎은 학생과 전경이 왜 싸워야 하는지 이리송? 돌을 퍼하며 지나가는 행인 왠 "꽃가루(?)가 날려서 불인지 알았는데 돌들의 전쟁이구만"

'98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2학년 재학생 (73. 3. 1 ~ 80. 2. 28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7. 3. 3 ~ 4. 18
  - 장소 : 학군단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각1부
    - 1학년 성적 및 입학성적증명서 각1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2부
    - 신원진술서(A양식)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칼라사진(4×5cm) 7매
-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97. 11. 20
- 특전
  - 무시험 선발
  - 소위 임관, 중위 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 복무
  - 의무 복무기간 : 2년 4개월(정교중 최단기)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 전역시 직급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 문의처 : 학군단 서울캠퍼스 : 260-3537, 3538  
경주캠퍼스 : 770-2537, 2538

제112학생군사교육단장

'97 군장학생(전반기)모집

- 모집인원 : 1학년(00명), 2학년(00명), 3학년(00명)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 1학년(75. 1. 1 ~ 81. 1. 1출생자)
  - 2학년(74. 1. 1 ~ 80. 1. 1출생자)
  - 3학년(73. 1. 1 ~ 79. 1. 1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97. 3. 17 ~ 4. 19
  - 장소 : 학군단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1부
    - 입학성적증명서 1부
    - 대학성적증명서 1부(1학년 제외)
    - 복무연장 및 장기 복무지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2부
    - 재정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 납세증명서 각1부
    - 사진(4×5cm) 7매
- 선발절차
  - 서류전형(입학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97. 8. 1
- 특전
  - 학군사관 지원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대학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급(년3,550,000원)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후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 문의처 : 학군단 서울캠퍼스 : 260-3537, 3538  
경주캠퍼스 : 770-2537, 2538

제112학생군사교육단장

수강취소안내

- 97학년도 1학기 신청 강좌에 대한 수강과목 취소(W)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신청기간 : 3.26(수) ~ 27(목), 2일간
  - 장소 : 소속대학 교과과
  - 수강과목 취소 :
    - 97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 중 1,2학년 대상 교과목 수강자에 한해 수강 과목 취소 가능 (단, 수강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 취소과목은 해당 학기 성적표에 "W"로 표기됨.

교무처장

인·적성검사 실시

- 최근 기업의 채용 전형 기준에서 능력보다는 개인의 품성을 더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인·적성검사가 기존의 채용 시험을 대체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인·적성 검사를 채용 도구로 활용함에 따라 재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검사의 종류 : 취업대비 인적성 검사
  - 검사지 : 매경 직무 적성 검사지
  - 접수 일자 : 3월 24일 - 3월 29일
  - 검사 일자 : 1회 : 4월 1일(화)  
2회 : 4월 2일(수)
  - 검사장소 : 학술 문화관 세미나실 3.
  - 비용 : 부당 2,000원
  - 문의 : 260-3613(졸.준.위)
  - 기타 : 학우들의 수업시간문제와 다양한 인적성 검사를 접할 수 있도록 양일간 다른 문제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제 9대 졸업준비 위원회

# 대학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풍물소리

## 우리 것에 대한 인식과 애정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없지만 풍악에서 이따금씩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바로 풍물소리. 하지만 정겨운 우리 가락임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귀를 막는 학생들과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84년 민중운동의 성장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풍물에는 대중적인 기원을 바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화려했던 자취는 사라지고 몇몇 풍물패만이 현존한 채 명맥을 잇고 있다. 풍물보다는 락이나 댄스음악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소비향락적, 상업적인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풍물은 소외되고 있다.

풍물의 기원을 살펴보면 옛날의 학자들이 풍물을 천하게 여겼던 탓인지 풍물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으며 기원설도 여러 가지다. 그 중에서 농사의 풍자를 기원했다는 풍농안락기원설, 대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 풍물들을 했다는 군악설,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절을 살리기 위해 열린 연회에서 풍물굿을 했다는 불교관계설이 대표적이다. 우리학교에서는 78년 풍물을 포함



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탈'이라는 동아리가 생겼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우리 것에 매료된 채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외에도 80년대에는 각 단과대마다 풍물패가 있었는데 지금은 5개 단과대 풍물패밖에 남아 있지 않다. 공과대 풍물패 '한소리'는 풍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정보경(공학계열2) 패장은 "풍물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풍물은 삶과 같다. 삶과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공연할 때 "시끄럽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을 보거나 관객이 적은 것을 보면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고 그는 털어 놓는다. 아직까지 존제하기를 하지만 대중문화의 그늘 속에 파묻혀 가는 풍물소리.

몇 년 전만 해도 풍물의 악기 쇠, 장고, 북, 징 등은 자기 몸피도 같은 존재로 다루어졌다. "북이 찢어져서 산배님들한테 엄청 맞았다"는 여러번의 학우의 말에서 그 당시 풍물과 지금의 풍물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어딘지 느껴진다.

그나마 대학 안에서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어렵게 돼가고 있다. 풍물소리가 사라지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되새길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무 심각한 소리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식상한 소리로 그쳐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것이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지금 운동장에서 풍물을 두들겨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오인택 기자)

## '97대학영화축제·제1회 서울여성영화제 잇달아 개막

# 한국 영화의 질적 발전 토대될 듯

영화의 영향력, 더 이상은 무시될 수 없는 문화적 위치를 세웠다. 이런 시점에 한국영화의 위상을 한차원 드 높일 수 있는 영화제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영화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97대학영화축제와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가 바로 그것이다.

순수 대학인들의 축제인 '97대학영화축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서울 및 경기·인천 지역의 54개 영화동아리가 소속된 대학영화제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은 '대학영화제 연합 작품전'과 '대학영화제교전'이 있다.

상업성에 몰리지 않고 한국 사회를

대변해 온 대학영화인들의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대학영화제 연합 작품전에 출품된 작품 중 완성도, 독창성, 진지한 현실 탐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총 15편이다.

대학영화제교전에서는 분실되었거나 소재 파악이 안됐던 작품, 상영 기회가 없었던 작품들을 모아 상영한다. 나 과거의 대학영화의 정신과 문화풍토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회다. 29일 폐막식에서는 사나리,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우수작품을 상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일주점과 과거 영화동아리 영화제 포스터와 팸플렛, 기념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회, 대학영화에 대

한 세미나가 함께 열리게 돼 대학영화인 뿐만 아니라 영화에 관심있는 모든 대학생에게 기억에 남을 행사일 거라고 기대해 본다.

그리고 남성문화중심적 영화문화에 여성의 시각을 높일 수 있는 한 묶음을 할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가 기다리고 있다. 오는 4월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동숭아트센터에서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는' 모토를 걸고 진행 된다.

상영작들은 총4편이고 여성의 시각과 고민을 담으면서 여성의 눈으로 알아낸 역사, 근대사 형성과 여성들의 정체성 확립 등을 다룬 문제작들이다. 특히 페미니스트영화의 고전 '독일, 장백한 어머니', '크리스타 클라게의

두 번째 각성'도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제는 한국영화 회고전, 새로운 기류의 여성영화, 아·태지역 여성영화, 독일 여성영화 회고전, 쟁점 영화전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또한 단편영화 및 비디오 공모전과 해외 여성감독과의 대화, 관객과의 포럼 등 눈여겨 볼 행사도 있다.

앞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서울여성영화제는 국제영화제인 동시에 여성 문제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작년 한국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던 부산국제영화제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영화제들.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 영화 발전의 토대가 되고 보여진다. (오인택 기자)

# 영상매체비평

## 영화 - 파고

영화 - 파고

눈이 순결하고, 포근하고, 평온하고?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모래, <그랑블루>의 바다처럼 이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눈이지만, 그것은 오히려(블레이드 러너)의 비와 가깝다. 눈과 비가 온도에 의해 갈라진 이영이(이영이) 필름 느와르의 영화의 배경이 되는 때와 장소로 말미암아 비 대신 눈을 흠뻑했다. 21세기의 음울하고 타락한 거대 도시의 비질을 그린 (블레이드 러너)를 마침표로 간주하고서 아직은 평온한 듯 보이는 21세기 말 풍속 도시의 변형된 필름 느와르(이 영화는 '검은 영화가 아니라 '하얀 영화'이다) <파고>를 읽을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눈은 죄악(장막) 드러낸 눈(가면)을 심했다. 빨간 낙인을 복권에 찍고서 눈이 녹을 때, 비가 흠뻑 쏟아질 때, 이 이야기는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후의 영화(블레이드 러너)와 맞닿을 것이다.

영화에 대한 영화를 즐기기, 그리고 바로 전작으로 찍은 코엔 형제가 신문

에 실린 실화를 바탕으로 느와르와 코메디 장르에 기대어 히스테리틱 증후군

을 달아내는 그러나 아닌 최 유머도 즐기는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시켰다. 1996년의 49회 칸 영화제는 <허드서커 대러인>으로 탐아가 된 코엔 형제를 거두어 들었다. 최우수감독상에 머물렀지만 19년의 (바본핑크)때보다 더 뜨거운 포용으로 안은 듯하다. 96년의 칸느는 '가족 영화'였다

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황금종려상 (비밀과 거짓말), 대상(브러킹 더 웨

이브)는 사실상 오로지 칸대 공인에서

만 보편적이었던 '기부장제' 이상에 핵

# '하얀색 검은영화'

## 퇴락하는 자본주의·가족에 대한 비판 스틸·경악·웃음·안타까움의 재미 듬뿍 담겨져

퇴락하는 자본주의·가족에 대한 비판 스틸·경악·웃음·안타까움의 재미 듬뿍 담겨져



가족주의의 위기와 고통을 시대정신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파고> 또한 남편이 장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아내 납치극을 벌인다는 가족을 둘러싼 끔찍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남편적인 연애관을 가져다 간 행방 한 가정은 오로지 이별형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돈과 신분과 인종, 전쟁 그리고 성적 정체성에 의해 흔들려 가는 우리 시대의 가족, 그것이 산달을 앞에 둔 미지의 근심이고(그녀는 제리의 대립 함으로 가족의 소중함 가치를 대변하는 듯한데, 코엔은 그녀에게 능동적인 서술자의 위치와 시점과 그 대대연의 마지막 장면을 마련해 주었다) 코엔의 실망이며, 칸느의 고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엔은 가족주의를 실물화 옹호하지 않는다. 가족은 안식처가 아

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TV를 보며 뜨개질하는 전형적인 가정주부 집은 사적 공간(협한 공적 영역에 비해 안전한 곳이고, 그래서 여성들은 그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신상에 좋다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실과되어온)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납치를 당한다. 납치 계약이 제리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파고>에서 저녁 늦게 이루어졌지만 정작 납치는 벌건 대낮에 욕실에서 성공한다. 남편의 사주를 받은 괴한들에 의해.

<파고>는 퇴락하는 자본주의와 가족에 대한 비판적 지성의 변모를 교훈이 아니라 설교가 아닌 스틸과 경악, 웃음과 안타까움의 영화적 재미로 심문 드러내 주고 있는 걸작이다.

한 승희 (대학원 영화학 석사과정)

# 메아리

## 사도세자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요즘 한창 스티븐에 올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다. YS재일 4년동안 한두번씩 등장하더니 이번엔 '현철 신드롬'까지 불려일으키며 엄청난 인물로 우리에게 타자나오는 그의 비리행적들. 하지만 그 누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철이 아무 리 수사를 하고, 여론이 비난하여도 제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다. 옛부터 우리들은 '자식은 때리면서 키워야 한다'고 배웠으며 어느정도 감싸주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잘 안다. 진소리를 줄이거나 잘못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나쁜 길로 가게 마련인 것이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뒤편 속에 가두면서까지 버릇을 잡으려고 했다. 이 사건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잘못된 것을 바

로 잡으려는 왕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영조는 어떠한가? 얼마전 YS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아들의 허물은 아버지의 잘못'이라며 한보사태와 관련 우리들에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얼마후 YTN인사개입, 삼미부도 등 그 대형사건의 전반에 걸쳐 아들의 개인이 확인되었고, 이에따라 아버지의 잘못도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검찰이 아무리 한보에 대하여 재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김대통령 자신의 결단이 중요하다. 아들

의 잘못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뜬구름잡는 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YS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들은 원하고 있다. ▲자신의 아들을 뒤편 속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 누가 대통령의 아들을 지금 현 상황에서 건드릴 수 있겠는가. 현 정권하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얼마후면 YS의 임기가 끝난다. 정권이 바뀌면 항상 그랬듯이 전 정권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있을리라. 지금 당장 편하다고 차일피 마무다 시대가 바뀌면 어차피 현철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인 것이다. 현철씨가 계속 사회에 해를 끼치며 생활하는 것을 더이상 눈감아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그를 호되게 꾸짖고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바로 그를 위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도리인 것이다. (춘)

작년 10월

고대성 (15)

K 306 개강 3주후

공고

J 502

일방공고

강의시간: 연성

교수: "

강의실: "

교수백이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 뭐, 애가 킹카라구?

쫄쫄, 진짜 킹카를 몰라보는군. 길만 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진짜 우리학교 정보통. 유니텔에서 주로 정보를 얻는다더군. 옆구리의 586 목록 1호지. 해커를 잡을 정도니까 컴실력은 알만 하겠지. 후훗, 아마 앓을까? 웃는 모습이 왠지 끌리는 녀석. 알고보니 컴퓨터통신 유니텔킹카. E-Mail로 꼭 한번 만나자고 해야겠어. 가만 먼저 유니텔에 가입을 해야겠는걸...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컴퓨터통신, 유니텔

UNITEL

유니텔 가입문의 02)528-0114-7

정보기술 서비스 전문회사

SAMSUNG

삼성데이터시스템

매력을 알면 너도 반할 걸. 펜티엄 노트북이 그의 재산. 사랑도 펜티엄급으로 하지 유니텔에선 킹카로 통하더군. ID가 뭐더라? 아니, 그보다